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예수님

성경말씀: 눅9:10-17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일들 중 가장 놀라운 일, 4복음서에 기록됨

오병이어 기적, 갈릴리에서의 마지막 사역, 이후로 두로와 시돈, 가이사랴 빌립보, 유대 십자가

헤롯의 질문: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이런 일들이 내게 들리느냐?”(9), 이에 대한 답변
벧새다(10)는 요르단 강 동쪽의 도시

원래 제자들의 왕국 복음 선포 후에 쉬려고 모임을 가짐(6, 10): 휴식은 사역에도 필요하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외딴 곳까지 따라 나섬(약13km): 사람들은 예수님이 받아주실 줄 안다.
제자들의 태도(12):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려 하기보다 가게 함(눅18:15; 마15:23), 우리는 어떤가?
이들의 상태, 목자 없는 양들(막6:34), 지치고 굶주린 상태, 양은 목자 없이는 살 수 없다.
주님의 태도(11), 불쌍히 여기심(막6:34),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

1. 받아들이고, 2. 하나님의 왕국, 3. 고치고, 4. 먹임
 - a. 누구든지 오라고 초청하신다(요3:16; 계22:17).
 - b. 진리: 하나님의 왕국 통치의 복음, 회개, 믿음, 인격의 변화(성화)
 - c. 고침: healing, 육신의 병, 영의 병, 병 고침을 주심
 - d. 먹임: 육신의 필요, 영적인 필요를 필요 이상으로 충분히 채워 주신다(요10:10) <제목>

왜 기적이 일어나는가?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육신의 뜻에 따라 하갈을 취해 이스마엘 출산, 100세에(이스마엘14세) 이삭 출산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함, 사라의 축출 간청, 하갈과 이스마엘 쫓아냄(창21)

1. 빵과 물 한 부대, 2. 물이 떨어짐, 하갈의 울음소리, 3. 하나님이 그녀의 울음소리와 이스마엘의
음성을 듣고 물을 주심(17)
3. 하갈에게도 창조자로서 불쌍히 여기시며 보편적인 은혜를 베푸신다.
4. 모든 창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있다. 이번 가을의 기근(백합, 새, 마6)
5. 심지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인 이들의 육신의 필요를 왜 안 채워 주시겠는가?
자기를 잊고 부지런히 주님을 찾는 자들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 이들은 주님과 그분의 말씀
때문에 먹는 것도 다 잊었다. 말씀이 배 고품보다 더 중요하였다.
6. 우리 역시 이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 “영원한 생명의 말씀들이...?”(요6:68)

기적의 현장

빌립에게 먼저 물음, “우리가 어디서 빵을 사서 이들을 먹이겠느냐?”(요6:6), 그들을 시험하시려고
남자만 5,000명(14), 적어도 10,000명, 200테나리온 어치(천에서 이천만원)

“음식을 사든지 보내야 한다”(13) “너희가 주어라.”(13)

안드레가 한 소년의 오병 이어(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요6:8-9), 순천 형제,

일은 많은데 자원이 부족한 경우: 우리가 간절히 원할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우리 교회 건물 등
보잘 것 없는 것들을 가지고 일을 시작하심: 초대 교회(12명, 120명, 세상 변화), 우리 교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로 일을 먼저 시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어떻게 기적이 일어나는가?

오십 명씩 무리지어 앉게 하심(14-15)

아무리 급해도 하나님의 기적과 부흥은 질서 있게 일어난다. 제대로 정돈된 삶을 사는가?

구원받지 못한 자들: 질서를 원하는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함

구원받은 자들: 질서를 원하는가?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성화의 갈망이 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늘을 우러러보시며 축복 기도하시고 빵을 떼자(부수자) 기적이 일어남(16)

1. 하늘을 우러러보시며 축복 기도: 이 모든 일의 근원은 내가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 이것을 인정해야
함, 개인이든 교회든 부흥이 일어나면 그 주체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부흥은 곧 사라진다.

2. 주님의 손에 들린 빵이 쪼개지며 부서지자 기적이 일어남(16): 떼다(Break)

한 소년의 희생, 그것이 주님의 손에 들려 쪼개지자, 부서지자 10,000명을 먹이는 기적
눅7장에서 옥합을 들고 오는 여인, 옥합이 깨어질 때 향기를 발하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함
그런데 이렇게 깨어지는 것은 고통과 아픔이 동반함

3. 틴데일(AD 1494-1536)의 성경 번역: KJV의 70-80%

“성경이란 필요 없소. 보통 사람들이 읽도록 성경을 영어로 번역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단지 교황뿐이요. 교황의 법 없이 사느니 차라리 하나님의 법 없이
사는 게 훨씬 더 낫소.” “나는 교황과 그의 모든 법에 도전하며, 만일 하나님께서 목숨을 살려주신
다면 앞으로 몇 년 내에 쟁기를 끄는 소년이 교황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알게 할 것이요.”

독일, 벨기에 등을 떠돌아다니며 성경 번역, “평생토록 어떻게 바르게 번역할까?”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타나게 될 그 날에 하나님께서 증언해 주시기를 바라노니
나는 결코 내 양심을 거슬러 하나님의 말씀의 단 한 음절도 바꾸지 않았으며, 땅 위에 있는
모든 것 즉 명예와 쾌락과 재산을 내게 준다 해도 결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 화형대에서 불타 죽음, 이런 희생이 있어야 하나님의 기적이 가능하다.

4. 우리 예수님도 이런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다.

고전11:23-24, 너희를 위하여 찢긴, 부서진 내 몸이다. 흘린 피 곧 새 상속 언약의 피
히브리서 12:2,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시하시더니 이제 [하나님]의 왕좌 오른쪽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의 이런 부서지는 희생 위에 이 교회가 창립되었고 사도 바울과 성도들의 희생으로 여기까지
교회가 왔다. 바로 이런 교회와 성도가 지옥의 문들이 이기지 못하는 교회요 성도이다.

우리는 어떤가? 주님께서 우리를 부수어 사용하시도록 내어드리고 있는가?

세상으로 향하는 우리의 욕망을 부수어야 주님의 일이 나타난다(골3:2).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때 개인과 교회에 부흥의 기적이 일어난다.

5. 예수님이 직접 주시지 않았다: 소년과 제자들을 통해 하셨다(16-17)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실 부분과 사람이 할 부분이 있다(고전3:9).

12명의 제자들, 빵 반 조각, 물고기 육분의 1, 한 사람이 500여 명을 먹였다.

한 사람이 먹기에도 모자라는 양,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충분히 배불리 먹었다(17).

그리고 빵 조각을 12 바구니에 가득 채웠다. 우리의 필요뿐만 아니라 남도 도울 수 있다.

즉 하나님의 부흥에는 이런 부흥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모두 나서서 일해야 한다.

이런 부흥과 기적을 원하는가? 남이 아니라 내가 희생하며 나서야 한다.

요약

1. 공허, 2. 문제는 기회다, 3. 우리의 것을 내놓고 신뢰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머지를 하신다.
4. 육신의 필요도 채워 주신다. 5. 나누어 주는 데도 질서가 있다. 6. 좋은 선물은 하늘에서 온다.
7. 주님의 축복으로 작은 것이 크게 된다. 8. 주님이 함께 하면 배부르게 된다. 심지어 12바구니